

신여성 최영숙의 삶과 기록: 스웨덴 유학 시절의 신화와 루머, 그리고 진실에 대한 실증적 검증*

이 효진**

논문요약

해외 유학과 신여성 중에서도 최영숙(1906-1932)은 독특한 존재였다. 일본, 미국으로의 유학이 아닌 스웨덴으로 유학을 간 것, 세계 유람을 거쳐 인도에서 간디와 나이 두를 접견하고 귀국한 이력,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의 비극적인 요절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이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최영숙의 이력에 비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아카이브, 신문기사, 잡지 등에서 찾아낸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최영숙의 스웨덴 생활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최영숙이 스웨덴에 입국하게 된 경위와 기독교 단체들의 협력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영숙이 스웨덴 황실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최영숙이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가 아닌 사회정치와 정책 연구소에서 유학했음을 밝혀내고, 당시 스웨덴의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끼쳤던 바게 교수와 코흐 교수 등의 영향을 받았음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영숙이 스웨덴에서 5년간 체류하면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학자, 상인, 기자, 유럽의 여성운동가, 중국대사 등의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폭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한국의 억압받는 식민지 하의 현실을 스웨덴 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최영숙, 신여성, 최초의 스웨덴 유학생, 재외 애국독립운동, 근대기 한국-스웨덴 교류

*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KS-2018-R-08). 논문 수정을 위해 귀중한 논평과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 주저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Transcultural Studies 강사, leehyojinis@gmail.com

I. 들어가며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시기에도 국내 지식인들의 해외유학은 증가해 갔다. 신문명에 대한 동경 혹은 선진 지식을 받아들여 조선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쓰고자 지식인들은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눈을 돌렸다. 최초의 미국 유학생 박에스터(1894년에 미국유학을 떠남)를 필두로 김마리아, 박인덕 등 소위 신여성이라 일컬어지는 여성들의 해외유학 생활과 귀국 후의 활동들이 두드러지는 시기이기도 하며 그녀들의 다양한 이국체험과 경험들은 신여성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¹⁾

해외 유학과 신여성 중에서도 최영숙(1906-1932)은 독특한 존재였다. 일본, 미국으로의 유학이 아닌 스웨덴으로 유학을 간 것, 세계 유람을 거쳐 인도에서 간디와 나이두를 접견하고 귀국한 이력,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의 비극적인 요절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이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최영숙의 이력에 비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귀국 후 반년 만에 찾아온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스웨덴에서 배워온 것과 자신의 이상을 차마 다 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그녀에 관해서 알려져 있는 기록은, 한국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글과 인터뷰, 그리고 사망 후 가십으로서 다뤄진 그와 인도인의 연애사 등이 전부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최영숙에 관한 연구는 유학과 신여성의 특이한 예로서 일부 다뤄지거나, 기담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다루어져왔다.²⁾ 우미영은 최영숙에 관한 최초의 논문인 “신여성 최영숙론”의

-
- 1) 신여성의 해외유학에 관한 연구는 김경일. 2006.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 김마리아, 박인덕,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11집; 정병준. 2009. “일제하 한국여성의 미국유학과 근대경험”. 『이화사학연구』 제39집; 신남주. 2005. “1920년대 지식인 여성의 등장과 해외유학”. 『여성과 역사』 제3집 등을 참조.
 - 2) 최영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논문은 우미영(2006)의 “신여성 최영숙론”이 유일하며, 전봉관(2006)의 『경성기담』의 마지막 챕터에 “조선 최초의 스웨덴 경제학사 최영숙 애사”와 김경일 외(2015),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에 짙막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최영숙이 인도에서의 경험을 담은 “간디와 나이두 회견기, 인도에 4개월 체류하면서”(『삼천리』, 1932, 5월호)는

서문에서 이를 비판하며, ‘윤색되고 사장된 최영숙의 삶을 한국의 자료에 근거하여 복원, 재조명하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우미영, 2006, 296).

하지만 최영숙의 존재는 여전히 이질적이며, 색다른 신여성의 해외 경험으로만 회자되는 듯하다. 최영숙 연구의 가장 큰 벽은 한국의 최영숙 관련 자료 대부분이 스웨덴 경험은 최영숙 본인의 목소리보다는 기사를 통해 전달된 것이며, 이조차도 최영숙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경제학사를 취득하고 황태자의 도서관에서 근무했다는 정도에 불과해 5년간의 스웨덴에서의 행적을 모두 알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간의 관심 역시 최영숙의 활동과 이상보다는 ‘최초의 동양인 여성’, ‘스웨덴 황태자와의 특별한 인연’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신화와 ‘파격적인 연애사’와 같은 떠도는 루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엽적인 키워드만으로 최영숙의 일생을 평가하는 것은 당시의 유학과 신여성으로서도 독보적인 행보를 보인 최영숙의 삶과 그 의의를 제대로 보는 것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³⁾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아카이브, 신문기사, 잡지 등에서 찾아낸 자료들을 토대로 ‘최영숙의 스웨덴 경험 바로 보기’를 시도하고자 한다.⁴⁾ 본 논문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알려진 스웨덴에서의 행적을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최영숙의 유학 생활을 학업, 강연 및 투고 활동, 인맥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것이다. 그간 발표되지 않았던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 스웨덴 내에서의 학업과 인맥 및 활동 범위를 검토함으로써 스웨덴 최초의 한인 유학생으로서의 국

영어로 번역되어 Hyaewol Choi, 2012, *New women in colonial Korea : a sourcebook* (New York: Routledge)에 소개되어 있다. 2016년에는 최영숙의 일대기를 모델로 한 전기소설 『검은 땅에 빛나는』(강동수, 2016)이 출간되기도 했다.

- 3) 임정연(2018)은 최영숙의 삶이 황색언론의 악의적 왜곡과 각색에 의해 가십거리로만 소비되어 왔으며 현대에 들어와 출판된 실명소설 『검은 땅에 빛나는』(2016)에서 역시 학문적 열정보다는 연애 스캔들을 앞세우고 주제적인 최영숙의 목소리를 일부 누락하면서 그녀를 실패한 신여성으로 고착시켰다고 지적했다.
- 4) 필자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스웨덴에서 자료 조사를 실시했으며 본문에 나오는 스웨덴 자료는 필자가 1차로 번역한 후 스웨덴 모국어 화자의 검수를 받아 싶었다.

제적이면서도 애국적이었던 최영숙의 삶을 실증적으로 그려내고자 한다.

II. 한국에서의 기록 분석

홍사단 입단이력서(독립기념관 소장, 1924년 4월)에 기록된 바로는 최영숙은 1905년 12월 19일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 조선에서 여주공립보통학교와 이화고등보통학교에서 수학한 후 1922년 중국 유학길에 올라 그해 9월 중국남경 명덕학교에 입학해 1년간 공부 후 남경 회문여자학교로 옮기었다.⁵⁾ 그리고 중국 유학으로부터 4년 후인 1926년, 최영숙은 스웨덴(瑞典)으로의 유학을 결행하게 된다. 여성의 몸으로 서양 국가에 유학가는 것이 드물었던 시절, 그것도 낯선 북유럽국 스웨덴으로 유학처를 정한 것은 당시로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으므로 신문들도 관심을 보였다. 이때부터 최영숙의 스웨덴 유학에 관한 기록은 본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신문기자를 통해,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1932년 26살에 요절한 최영숙과 뱃속에 있던 인도인 남편과의 아기는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갖가지 루머가 횡행하게 되었다. 특히 『삼천리』의 기사는 허구의 소설로 꾸며져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로 그녀의 일생을 격하시켰다. 『신여성』의 한 기사는 “야박한 세상 사람 혀끝과 붓 끝에 오르내리게 되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驛江人, 1932, 35)이라며 반발했고, 이후 『동광』과 『신여성』에서는 각각 최영숙의 삶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특집 기사를 실었다(驛江人, 1932, 35-41; 일기자, 1932, 33-39). 이들 기사는 비교적 최영숙의 일대기를 사실에

5) 명덕학교는 1884년에 북미 장노파 교회에 의해 세워졌으며, 회문여자학교는 1887년 감리교에 의해 세워졌다. 중국 유학에 관한 시대적 분위기와 학업과정에 대한 고찰은 우미영(2006)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근접하게 다루고 있지만, 『동광』의 임효정의 증언과 같이 최영숙의 남편이 한국 혼혈이라는 등 작고한 친구의 명예를 위해 만들어낸 듯한 부분도 보인다.

이렇게 신화와 전해지는 이야기로만 남겨진 최영숙의 실제 스웨덴 경험의 단서들을 찾아내기 위해 한국 자료에서 최영숙의 스웨덴에서의 행적에 관한 기록만을 추려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⁶⁾ 이 표에는 최영숙의 행적을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인지, 기자에 의해서 옮겨진 것인지, 실제 지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인지를 구분해서 표시해 두었다.

〈표 1〉 최영숙의 스웨덴 유학시절에 대한 기록

년도	활동내역	최영숙	기자	지인
1926	스웨덴에서 사회과학을 연구하려 7월 13일 밤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 일어와 중국어 영어에 정통, 사회주의에 관한 서적을 가지고 가다가 경찰에 주목받음. (『瑞典의學海로 사회학을 배우려고 哈市를通過한 崔英淑嬢』. 『동아일보』. 1926년 7월 23일)		○	
1928	엘렌 케이 여사의 사상에 감흥을 받고 서전 유학을 감행, 현재 서전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음. 학업에 열중하며 조선을 위한 글과 말을 많이 발표하는 중. 장차 유럽 일대를 순회하고 귀국할 예정. (“『엘렌케이』차자가 서전에잇는최영숙양”. 『조선일보』. 1928년 4월 10일)		○	
	스웨덴 사회사정 및 조직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함. 스웨덴국제부인자유평리회에 참가하여 일주일 동안 명사들의 강연을 듣고 제네바 대표로 ‘제국주의자들의 양민정책’을 발표한 쉘스한큰스여사와 접견하여 감명을 받음. 스위스의 국제대학에 입학할 결심을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포기. 경제상의 도움을 얻기 위해 약간의 논문을 스웨덴 신문에 투고하고, 강연을 하게 됨. 민중공회당에서 ‘東洋女子의解放運動’이라는 주제로 강연예정. (상동)	○		

6) 최영숙과 인도인 남편, 그와의 아이에 대해서 자극적인 허구기사를 실은 삼천리(1932)의 기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추후 기술하겠지만 최영숙이 유학했던 학교에는 인도인이 없었으며, 이후 『동광』(일기자, 1932)과 『신여성』(驛江人, 1932)에서 본 기사의 허구성을 반박하며 보다 신빙성 있는 기사를 실었다.

년도	활동내역	최영숙	기자	지인
1931	엘렌 케이가 세상을 떠난 1926년 7월에서 두 달 늦게 스웨덴에 도착. 배가와 방석 자수 및 외국어교사, 잡지 기자 등으로 생활을 해결. 1931년 1월에 스톡홀름 대학 경제과를 졸업 후 유럽 및 인도 순방을 거쳐 귀국. (“서전에유학, 九년만에 귀국한최영숙씨”. 『동아일보』, 1931년 11월 29일)	○	○	
1932	엘렌 케이 여사와 만나지 못했지만 여성운동을 하는 여사의 친척들과 교류함. 스웨덴 도착 후 1년 동안 스웨덴어만을 수학, 이후에 스톡홀름 대학 정치경제과에 입학하여 4년간 공부. 여학교수, 자수, 조선의 사정을 신문 등에 투고하여 생활비를 충당. (婦人記者. “朝鮮最初의 女經濟學士 崔英淑氏 訪問記”. 『신여성』, 1932년 1월호)	○		
	1926년 6월에 난징을 떠나 서전으로 향하였음. 10월 21일 ‘씩팁나중학교에 입학하였다가 다시 스톡홀름 대학 경제과에 입학하여 6년 동안 고학한 결과 1930년 9월에 경제학사 학위를 받으며 졸업. 스웨덴에 있는 동안 동양인은 이은 황태자 부부가 방문한 것과 중국 공사일행만 알았으며 인도 사람과 만난 적이 없음. 스웨덴 황태자의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스웨덴어로 번역했음. (驛江人. “-青春悲話- 經濟學士 崔英淑氏悲戀哀史”. 『신여성』, 1932년 6월호)		○	○
	위 신여성의 기사와 대체적으로 동일하나 졸업 월이 6월이며 스웨덴에 있을 때 도움을 준 수양아버지가 있었음. (일기자. “經濟學史崔英淑女士와 印度青年과의 戀愛關係의 真相”. 『동광』, 1932년 제4권제6호)		○	○
1935	(스텐 베리만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스톡홀름 박물관에서 수삼차 베리만 박사와 만난 적이 있고 조선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음. 베리만 박사는 최영숙이 황태자도서관에서 동양 서류정리를 위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함. (“世界的으로紹介된 北朝鮮의動植物”. 『조선일보』, 1935년 2월 23일)			○

* 출처: 본문 표기

위 표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최영숙 본인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년 동안 스웨덴어만을 수학하였다
- 스톡홀름 대학 정치경제과에 입학하여 4년간 공부하였다
- 유학시절 어학교수, 자수, 조선의 사정을 신문 등에 투고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 스웨덴국제부인자유평리회에 참가하였다
- 조선 사정을 신문에 투고하고 강연회에서 발표하였다

신문 기사 및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달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황태자 도서관에서 번역일 및 동양서류정리를 하였다
- 대학에서 인도인 남편을 만났다 혹은 여행 중 기차에서 만났다

이 증언들만으로도 최영숙이 스웨덴에서 단순히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동시에 이러한 활동들은 잊혀지고 전설처럼 ‘스웨덴에 유학한 첫 동양인 여성’이라는 한 줄로 요약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삼천리』의 가십성 기사와 인도인과의 결혼, 임신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에 의해서 최영숙의 삶이 가십거리가 되어 버린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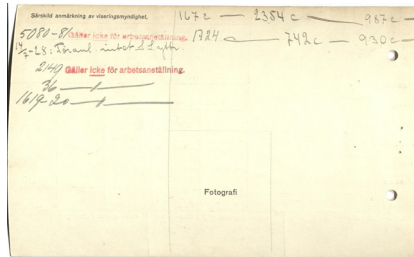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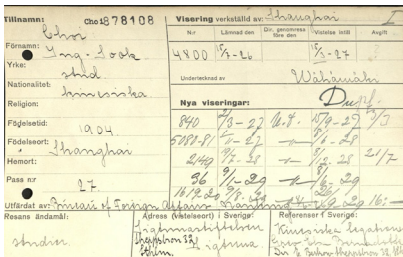
위 기록들에 따르면 최영숙은 단순히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서서, 스웨덴에서의 5년 동안 스웨덴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왕족들과 교류를 할 만큼 인맥을 넓혔으며 신문에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초의 스웨덴 유학’이라는 전설과 ‘인도인과 연애’를 둘러싼 루머의 사이에서 최영숙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결국 최영숙의 삶과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재스웨덴 기간 동안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III. 스웨덴에서 발견된 최영숙의 흔적들

최영숙의 삶을 재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필자는 위의 자료와 증언들을 근거로 하여 최영숙의 스웨덴에서의 삶을 역추적해 보았다. 최영숙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그의 스웨덴 활동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최영숙의 스웨덴에서의 활동을 시기·단계별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비자 및 입국기록

최영숙은 어떤 신분으로 스웨덴에 입국하였으며 어디에서 생활하였고 누구와 교류했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을 줄 자료가 스웨덴 국립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 스웨덴 국립아카이브인 ‘Riksarkivet’에는 최영숙의 비자 신청 기록과 비자카드, 경찰에 의한 신변조사 보고서 등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최영숙은 1926년 7월 16일에 최초로 스웨덴 비자를 발급받았고 그달 25일부터 스웨덴에 체류했으며 이후 1927년에 두 번, 1928년에 한 번, 1929년에 세 번, 1930년에 두 번 비자를 발급받은 기록이 나온다. 이같은 기록으로 보았을 때 비자는 평균 6개월 정도씩밖에 발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난징 외국인청에서 발급된 스웨덴 비자카드 앞면(좌), 뒷면(우)

(출처: Riksarkivet. Kungl. Utrikesdepartementet. “Choi, Jing Sook”).

최영숙의 출생년도는 1904년과 1906년이 번갈아가며 나오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한 비자신청서를 기준으로 보면 1906년이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적은 중국으로 되어 있으며 출생지는 상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유학생들이 일본의 유학 통제를 피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 후 유럽으로 건너온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정병준, 2009, 29-30). 비자신청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종교, 출생지, 국적, 직업, 스웨덴에 온 목적, 과거직업, 보증인, 현재까지 체류기간, 여권만료일, 비자신청기간 등의 항목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현 주소와 사인을 적는 칸이 있다. 비자 신청목적은 당연하게도 학업(Study)이었으며, 직업 또한 학생이었다. 비자신청서는 영어로 작성하다가 1928년부터 스웨덴어로 작성되었는데, 이즈음 스웨덴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이름은 ‘Choi, Ying Sook’을 쓰다가 1928년부터 ‘Choi, Young Sook’으로 고쳐 쓰기 시작했다.

비자신청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보증인과 주소이다. 이를 토대로 스웨덴 정착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신청서에 적힌 보증인과 주소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최영숙의 스웨덴 유학 시절 보증인과 체류지

작성일자	보증인	주소
1927년 1월 29일	Kinesiska Legationen	Sigtuna Stiftelsen
1927년 10월 21일	Elsa Bernadotte	Bergsgatan 39, K.F.U.K
1928년 6월 20일	Grevinnan Elsa Bernadotte	Bergsgatan 39
1928년 12월 20일	J. G. Beskow	Skeppsbron 32
1929년 7월 25일	J. G. Beskow	Skeppsbron 32
1929년 12월 28일	J. G. Beskow	Skeppsbron 32
1930년 3월 26일	J. G. Beskow	Skeppsbron 32
1930년 8월 23일	J. G. Beskow	Skeppsbron 32

* 출처: Riksarkivet. Kungl. Utrikesdepartementet. “Choi, Jing Sook”.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최영숙은 중국대사관을 통해 스웨덴에 입국한 후 시그투나(Sigtuna)라는 작은 도시에서 머물렀다. 이후 K.F.U.K의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1928년부터 스톡홀름의 감라스탄에 있는 한 주택에서 마지막까지 머무르게 된다. 처음 머물렀던 시그투나스티프텔센(SigtunaStiftelsen) 역시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던 곳이었으므로, K.F.U.K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처음 스웨덴 정착에는 스웨덴 여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증인인 엘사 베르나도트(Elsa Bernadotte)는 K.F.U.K의 대표였으며 스웨덴의 공주였다. 요한 구스타브 베스코브(J. G. Beskow)는 스웨덴의 유명한 동화작가 엘사 베스코브(Elsa Beskow, 1874-1953)와 같은 가문 출신의 스웨덴 상인이었다. 그의 부인이 K.F.U.K의 멤버였으므로 최영숙은 이 단체를 통해 스웨덴에서의 인맥을 넓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인물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경찰 범죄조사국의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스웨덴 경찰 범죄조사국은 비자 신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마다 본인과 인터뷰를 하고 간혹 주변인들과도 인터뷰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최영숙에 관한 레포트는 총 4건이 존재한다. 보통 반 장 정도의 분량이며 첫째에만 한 장 반으로 길게 작성되어 있다. 최영숙은 인터뷰에서 본인이 중국 상해에서 태어났으며 6살이 되던 해 서울 친척집으로 보내져서 18세까지 한국에서 머물렀다고 증언했다.⁷⁾ 이는 최영숙이 중국 국적으로 입국한 사실을 정당화하면서도 스스로의 뿌리가 조선에 있음을 주지시키고자 한 절충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영숙은 스웨덴에서 응한 모든 인터뷰에서 자신이 조선인임을 숨기지 않았다. 비록 조선 국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최영숙의 국가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했던 것이다.

7) Riksarkivet. Kungl. Utrikesdepartementet. "Choi, Jing Sook" 문서 내 스웨덴범죄조사국보고서, 1927.11.17. 작성본.

2. 시그투나 시절과 K.F.U.K

최영숙은 어디에서 스웨덴어를 배웠을까. 『동광』과 『신여성』에 실린 일대기를 살펴보면 각각 ‘시렵나와 ‘씨팁나에서 수학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시그투나라는 마을을 표기한 것이다. 큰 호수로 둘러싸인 시그투나는 스웨덴 최초의 도시로 매우 유서 깊은 마을이다. 최영숙은 이 마을에서 시그투나스티프텔센이라는 기독교 단체 건물에 머무르게 된다.

시그투나스티프텔센은 1918년 8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설립자 만프레드 보크퀴비스트(Manfred björkquist, 1884-1985)는 목사집안 출신으로 보수적인 기존 기독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독교를 구상하였고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시그투나스티프텔센을 설립하였다. 그는 오래된 전통 기독교적 생각을 벗어나, 기독교적 인본주의, 문화적 다양성과 지식 그리고 대중운동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Carlström, 2007, 11, 24). 동시에 그는 젊은 남녀의 지식 함양과 그들을 사회의 바른 일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그투나 인민학교(Sigtuna Folkhögskola, 성인 대상 실용 교육기관)를 설립하였다(Sigtuna Folkhögskola, 1934, 2-3).

최영숙은 이 시그투나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스웨덴어와 스웨덴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웠다. 시그투나 인민학교는 4월 개강의 여름학과와 10월 개강의 겨울학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영숙은 겨울학기에 입학하였다. 겨울학기는 2년으로 나뉘어져 첫해에는 5개월에 걸쳐 종교, 자기계발, 모국어, 문학사 및 문학강독, 역사, 국민지식, 지리, 자연과학, 수학, 미술, 쓰기, 음악, 체육 등의 과목을 배우고 2년차에는 종교 2, 자기계발 2, 글쓰기, 문학사, 심리학, 영어, 역사, 국가 및 공동체생활지식, 지리학, 자연과학, 수학, 회계, 음악, 체육 등을 배웠다. 이외에도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종교, 철학, 역사, 국가경제 등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에 모여 같이 공부하기도 했다(Sigtuna Folkhögskola, 1934, 5-7).

시그투나스티프텔센의 아카이브에 시그투나 인민학교의 자료가 남아 있는데, 1926년에서 1928년까지의 사진집에서 최영숙의 사진을 몇 장 발견할 수 있다. 하얀 한복을 입고 동무들과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최영숙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또한 『동광』에 게재된 단체 사진은 사실 시그투나 인민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이 스웨덴대학 사진이라고 잘못 알려진 케이스이다. 시그투나 인민학교에 입학한 외국인은 최영숙이 최초였고, 그가 수학할 동안 다른 외국인이 입학한 기록은 없다.



[사진 2] 시그투나 시절의 최영숙과 동료들.
스웨덴어로 “3명의 귀여운 친구들”이라 적혀 있다.

(출처: Sigtunastiftelsen arkiv. “Sigtunastiftelsens Folkhögskola Picture Book (1927-1928)”)

그렇다면 최영숙은 어떻게 스톡홀름도 아닌 시그투나라는 소도시에서 스

웨덴 생활을 시작했을까? 시그투나스티프텔센과 K.F.U.K의 관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K.F.U.K는 'Kristliga Föreningen av Unga Kvinnor'의 약자로 1855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여성 기독교 단체(스웨덴의 YWCA)이다. 이 단체와 시그투나스티프텔센은 같은 기독교에 뿌리를 둔 단체이므로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그투나 인민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마다 K.F.U.K에서 발간하는 잡지 *Våra Flickor*에 학생 모집광고를 신기도 했다.⁸⁾ 상술한 경찰 범죄조사국의 1927년 11월 보고서에 의하면 최영숙은 1926년 10월 21일부터 1927년 6월 20일까지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해 9월부터 스톡홀름 대학교(당시 Stockholm Högskola)의 역사/국가경제학에 입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⁹⁾ 최영숙은 시그투나라는 한 작지만 유서 깊은 마을에서 유일한 동양인으로서 스웨덴어와 스웨덴의 역사, 문화 등 스웨덴 사회에 녹아 들어가기 위한 내실을 다졌던 것이다.

3. 스톡홀름 대학교가 아닌 스톡홀름 사회정치와 정책 연구소에서 수학

상술한 192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최영숙은 1927년 9월에 스톡홀름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1929년 1월 보고서에는 “스톡홀름 대학교에 원서를 냈지만 대학 입학에 위해 요구되는 학점에 부족해서 입학할 수 없었다”¹⁰⁾라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학점이 부족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자 그대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입학하지 못했거나, 둘째, 대학 입학에 요구되는 과목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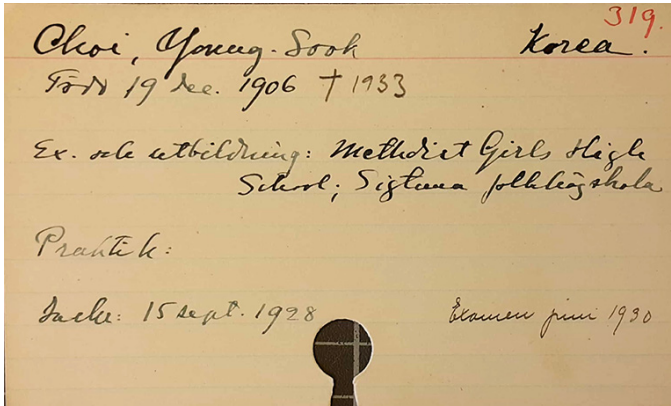
8) 읍살라나 운쇼핑 등에서도 학생 모집 광고를 올렸으나 거리상으로 시그투나가 스톡홀름에서 가장 가까웠다.

9) Riksarkivet. Kungl. Utrikesdepartementet. “Choi, Jing Sook” 문서 내 스웨덴범죄조사국보고서, 1927.11.17. 작성본.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Sökanden önskade helst komma in vid ett universitet för att där bedriva sina studier men kunde icke vinna inträde, emedan hon icke hade sådana betyg, som för dette ändamål erfordrades”(Riksarkivet. Kungl. Utrikesdepartementet. “Choi, Jing Sook” 문서 내 스웨덴범죄조사국 보고서, 1929.1.2. 작성본).

모두 이수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실제로 스웨덴 국립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스톡홀름 대학교 학생카드 속에 최영숙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스웨덴 대학에서 최초로 경제학사를 취득했다는 이력은 거짓인 걸까?

1930년 3월과 8월에 작성된 스웨덴범죄조사국보고서에 보면 최영숙은 스톡홀름 대학교가 아닌 사회정치와 정책 연구소(Socialpolitiska och Kommunala Institutet)에서 수학 중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사회정치와 정책 연구소의 학생 명부를 조사한 결과, 최영숙의 학생카드와 성적표를 찾을 수 있었다. 최영숙의 학생번호는 319번으로 1928년 9월에 입학한 것으로 나온다. 최영숙이 입학했던 1928년 가을학기에는 최영숙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입학했는데 최영숙이 유일한 외국인 유학생이었다.¹¹⁾ 최영숙은 이 연구소에서 2년간 수학한 후 1930년 6월 13일자로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3] 최영숙의 학생카드. 1933년 사망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동기들에게 (일년 늦게) 사망 소식이 전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출처: Riksarkivet. Socialinstitutet I Stockholm. "Register till examinerade och diplomerade elever 1921-1945, A-Z")

11) 여담으로 1921년부터 1945년 사이의 학생카드 기록에 최영숙 이외의 동양인은 한 명도 없었으며 인도에서의 유학생도 물론 없었다(Riksarkivet. Socialinstitutet I Stockholm. "Register till examinerade och diplomerade elever 1921-1945, A-Z").

사회정치와 정책 연구소는 스톡홀름 대학교의 사회정치·경제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20년에 스웨덴 사회 복지 중앙협회(Centralförbundet för socialt arbete)에서 스톡홀름 대학교에 국가경제학 및 사회정책학 교수직을 설립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교수직이 설치되었고 이 교수직을 맡는 사람은 사회정치와 정책 연구소의 책임자를 겸임했다. 또 커리큘럼을 보면 이 연구소에서 국가경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은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봄학기 동안 사회정치와 경제 과목을 26시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기도 했다(Socialinstitutet i Stockholm, 1929, 8). 1977년에는 정식으로 스톡홀름 대학교에 편입되어 사회활동 학부(Institutionen för socialt arbete)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정치와 정책 연구소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영역에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년에서 이년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짜여 있었다¹²⁾. 학기는 가을학기(9월-12월), 겨울학기(1월-3월), 봄학기(5월-6월)의 삼학기제로 운영되었고 커리큘럼으로는 국가경제학, 국가지식론, 일반사회정치학, 시정관리지식론, 시정경제학, 심리학, 윤리학 등의 과목이 있었다.¹³⁾ 이 중에서 최영숙이 이수했던 과목은 다섯 과목이었다.¹⁴⁾

- 1) 국가지식론(Fredrik Lagerroth 교수): 통과
- 2) 사회교육법(Otto Järte 교수): 우수 성적으로 통과
- 3) 사회복지와 보호론(G.H von Koch 교수): 좋은 성적으로 통과
- 4) 사회위생학(Kerstin Hesselgren): 통과
- 5) 국가경제학(Gösta Bagge): 통과¹⁵⁾

12) Svenk Juristtidning arkiv. "Institutet för socialpolitisk och kommunal utbildning och forskning". <https://svjt.se/svjt/1928/197> (검색일: 2018.08.27).

13) 순서대로 Nationalekonomi, Statskunskap, allmän socialpolitik, Samhällshjälp och skyddsverksamhet, kommunal förvaltningskunskap, kommunal hushållning, Socialhygien, Psykologi, Etik.

14) Riksarkivet. Socialinstitutet i Stockholm. "Examensliggare 1921-1937 (Nr: 1 - 600 D 3:1).

15) 다음은 학교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에서 최영숙이 이수했던 과목들의 수업 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최영숙이 중국에서 스웨덴으로 떠날 때 사회주의 서적을 다수 소지하고 있어 경찰의 주목을 받았던 기록에서 보듯이 최영숙은 처음 스웨덴으로 떠날 때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의 커리큘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녀의 관심이 사회주의 이론에서 사회경제학, 노동자와 복지 등의 실용주의적 학문으로 옮겨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문적인 변화에는 당시 사회정치와 정책 연구소의 학술 분위기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스톡홀름 대학교와 사회정치와 정책 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던 교수 요스타 바게(Gösta Adolfsson Bagge, 1882-1951)로 추측된다. 바게 교수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엘리 필립 헤셔(Eli Filip Heckscher, 1879-1952)와 함께 스웨덴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다루는 잡지 *Svensk Tidskrift*¹⁶⁾를 창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부교수로 재직하다 1921년 경제학 교수로 정식 임용되었다. 사회정책 연구에 종사하면서 노동 운동, 노동 환경, 노동 방법, 생산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실용주의적 경제학 이론 연구에 종사했다¹⁷⁾. 바게 교수는 최영숙이 입학했을 당시 국가경제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세미나에서 최영숙이 잉게보리 라손(Ingeborg Larsson, 1898-?)과 함께 “열악

	1928-29	1929-30
국가지식	가을학기 36시간	가을학기 36시간
사회교육법	가을학기 45시간	가을학기 32시간
	겨울학기 20시간	겨울학기 23시간
	봄학기 실습	실습(?)
사회복지와 보호	가을학기 38시간	가을학기 40시간
	겨울학기 22시간	겨울학기 22시간
사회위생	가을학기 15시간	가을학기 6시간
	봄학기 20시간	겨울/봄학기 22시간
국가경제	가을학기 20시간	가을학기 26시간
	겨울학기 10시간	
	봄학기 14시간	

16) 1911년에 창간되었으며 현재는 온라인 저널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

17) Svenskt biografiskt lexikon. “Gösta Adolfsson Bagge”. <https://sok.riksarkivet.se/sbl/Presentation.aspx?id=18992> (검색일: 2018.08.30).

한 인력문제”에 대해서 그룹 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와 보호론을 가르쳤던 코흐(Richert Gerhard Halfred von Koch, 1972-1948) 교수 역시 농업 및 농장 노동자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자유당(Frisinnade folkpartiet) 당원으로 활동하며 사회 정책 문제에 깊은 관여를 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최영숙은 바게, 코흐 등 실용주의적 사회경제학을 연구하던 학자들 산하에서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노동과 경제, 사회 복지과 위생 등의 학문을 익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최영숙은 스톡홀름 대학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사회경제학 연구소와 스톡홀름 대학교의 밀접한 연결을 통한 추측뿐만 아니라 스톡홀름 대학교의 학생들이 출판한 잡지 *Gautlemus*에서도 최영숙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잡지에는 최영숙은 스톡홀름 대학교의 여성모임(Kvinnliga studentföreningen)의 멤버로 활동하며¹⁸⁾ 한국에 관한 이벤트를 열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회의 후에 한국에서 온 최영숙 여사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Styrelsen, 1928)

11월에 최영숙이 주최하는 한국의 밤 행사-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가 있었다. (M.A., 1929)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최영숙은 스톡홀름 대학교에 입학한 직후 혹은 입학 수속을 밟던 도중에 사회경제학 연구소로 학적을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이 스톡홀름 대학교 입학 수속시 학적상 문제가 발생했고 당시 연구

18) 이 여성모임은 1930년부터 모든 여학우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최영숙은 1928년부터 그 활동이 보이므로 입학 후 자의로 이 모임에 가입했음을 알 수 있다.

소장이었던 바게 교수와 상담을 거쳐 사회경제학 연구소를 추천받아 입학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사회경제학 연구소가 정식으로 스톡홀름 대학교에 편입된 것은 1977년이지만 이전부터 수업을 공유하고 학생부에 가입도 용인되는 등 이전부터 스톡홀름 대학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최영숙 또한 두 곳 모두에서 수업을 듣고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 최영숙의 학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영숙이 스톡홀름 대학교가 아닌 사회경제 정치 연구소에서 최영숙이 재학 중이던 시기의 교수들은 당시 스웨덴의 정치경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었으며 최영숙은 이 연구소에서 스웨덴에서 가장 앞서가는 실용주의적인 사회경제학의 전문적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최영숙은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적인 그들 감복할 그들의 시간 경제”(최영숙, 1932)라는 글을 기고해 ‘시간 경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경제강연회를 열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32.01.29). 그리고 이른 죽음으로 실현하지 못했지만 스웨덴에서 배웠던 것을 한국에 적용시켜 소비조합과 무산부인운동을 하려는 포부(婦人記者, 1932, 29) 또한 품고 귀국했던 것이다.

IV. 스웨덴에서의 인맥과 활동

1. 스웨덴 황실과의 인연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영숙의 보증인으로 엘사 베르나도트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주목할 점은 베르나도트는 스웨덴 왕족의 성이라는 점이다. 최영숙이 황태자 도서관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지인들의 증언으로 미루어볼

때 스웨덴 왕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엘사 빅토리아 세데그렌(Elsa Victoria Cedergren, 1883-1996)¹⁹⁾이었던 것이다. 스웨덴 왕자 오스카 베르나도트(Oscar Bernadotte, 1859-1953)와 에바 문크(Ebba Munck af Fulkila, 1858-1946)의 사이에서 태어난 백작부인으로 1929년에 사무 총장인 휴고 세데그렌(Hugo Cedergren)과 결혼해서 세데그렌 부인이 되었다. 프린스 오스카 베르나도트는 당시 국왕이었던 구스타브 5세와 형제사이(동생)이며, 즉 엘사 세데그렌과 황태자 구스타브 6세는 사촌지간이었다(Elgklo, 1995). 엘사 세데그렌은 1919년부터 K.F.U.K의 멤버가 되었으며 1922년부터 위원회에 참가, 1925년부터 1943년까지 대표로서 활동하였다. 1955년에는 여성기독교위원회(Kristna kvinnors samarbetskommitté)를, 1959년에는 스웨덴 여성 국제회의(Sveriges ekumeniska kvinnoråd)를 창립하였으며 대표를 역임했다(Dahl, 1995).

그렇다면 어떻게 스웨덴 왕실의 공주가 최영숙의 보증인이 되었던 것일까. 상술했던 것과 같이 K.F.U.K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엘사 세데그렌은 1925년부터 K.F.U.K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국제활동에 힘썼다. 그는 1925년 12월에 일본으로 떠나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여행했고 당시 중국 상해에 있던 지부에도 들리게 된다. 1925년은 최영숙이 상해에서 수학하고 있을 시기이므로 이 당시에 최영숙이 K.F.U.K와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때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최영숙이 이 여성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1927년과 1928년에 스톡홀름에 있는 K.F.U.K 중앙지부에서 머무르게 되고 엘사는 이 년에 걸쳐 최영숙의 보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면 최영숙이 황태자 구스타프 6세의 도서실에서 일하게 된 경로 또한 추측 가능하다. 조선에서 온 일개 유학생, 그것도 중국 국적을 통해 들어온 최영숙의 존재를 황태자가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2

19) 베르나도트는 결혼 전 성, 결혼 이후 세데그렌으로 불렸으며 스웨덴 내에서는 엘사 세데그렌으로 더욱 알려져있다.

년간에 걸친 엘사 세데그렌과의 접점을 생각해 본다면, 엘사 세데그렌이 최영숙을 아시아 유물에 관심이 많았던 황태자에게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최영숙이 황태자 도서실에서 근무한 근무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스웨덴 국립도서관과 황실도서관의 직원명부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역시 최영숙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스텐 베리만 박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면 동양박물관에서 단기로 근무하였을 수도 있다. 1930년 황태자가 동양박물관에 자신의 동아시아 물품을 기증하면서 이를 정리하는 데 일손이 필요해 최영숙이 단기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동양박물관에는 황태자의 기증품을 포함하여 수십 점의 한국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아카이브 기록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이들 수장품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스웨덴어로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²⁰⁾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최영숙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수양아버지 요한 구스타브 베스코브와 그의 부인 에스터

그렇다면 1928년 겨울부터 스웨덴을 떠나기 전까지 보증인에 이름을 올린 J. G. 베스코브는 누구인가? 『동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가 瑞典잇을 때에 親父母보다도 못하지 않게 그를 愛護하든 수양아버지 XX는 (寫眞은 잇으나 筆者不幸히 瑞典語를 모르는 까닭에 그이름을 알 수 없다) 作別을 아끼며 「돈이 떨어지면 원제든지 곳 傳報를 처라」하고 途中을 염려 하여주었다. 「괜찬어요 제가 저금한 돈이 한육백원 잇으니까요」 氏는 그親切을 謝絶하였다. (일기자, 1932, 33-39)

20) Östasiatiska museets arkiv. "huvudinventarier-K-katalogen över ÖS:s föremål (D1AA:11)" 문서 내 K.11244:1-13, 1930.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수양 아버지는 요한 구스타브 베스코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범죄조사국에서는 베스코브와 인터뷰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는데, 최영숙은 그와 그의 가족들과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베스코브 가족과의 인연은 다시 K.F.U.K와 연결되어 있다. 요한 베스코브의 아내 에스터 오케손 베스코브(Ester Åkesson-Beskow, 1879-1970)는 K.F.U.K.의 멤버로 엘사 세데그렌과 함께 국제 봉사 교환부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F.S.K.F.U.K, 1933, 27). 따라서 최영숙이 스톡홀름의 K.F.U.K에서 지내는 동안 에스터 베스코브와 친목을 다지고 이들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요한과 에스터 베스코브의 집은 스톡홀름의 올드타운의 동쪽에 위치한 'Skeppsbron' 32번지로 스톡홀름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집의 크기와 위치로 볼 때 부유한 상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 사이의 자식이 없어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자식이 없었던 부부에게 최영숙은 마치 딸같은 존재였을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3. 중국대사 부부

계속해서 『동광』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풍설이 있지만 그의 瑞典大學時代의 東洋人동무라고는 中國大使와 그의 婦인이 잇었을 따름이다. 比律貧사람도 없었고 中國學生도 없었고 印度青年도 勿論 없었다. (일기자, 1932, 34)

이 기사에 쓰인 대로 동양인 학생은 정말 최영숙 하나였을까. 필리핀 사람과 인도 사람은 물론 중국 학생도 없었는가.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최영숙이 수학했던 시그투나 인민학교와 스톡홀름 사회연구소의 학생카드를 검토했을 때 동양인 유학생은 최영숙이 유일했

던 것은 확실하다²¹⁾.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동광』에 실린 최영숙의 스웨덴 유학시절은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중국대사와의 친분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영숙이 체류할 당시 중국 대사관의 대사는 청종지엔(曾宗鑾, 대사재직기간: 1926년 2월 23일~1929년 2월 27일)과 주창넨(諸昌年, 대사재직기간: 1929년 2월 27일~1934년 2월 1일)이다. 이들은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대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중국의 대사로서 스웨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장기 체류자인 최영숙과 접점이 있었으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동아시아 관련 행사 및 전시회 등에도 대사로서 참여하거나 초청받았을 것이며, 최영숙 역시 동양미술전 등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대사관을 통해 일을 소개받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 대사 부부와 최영숙의 구체적인 교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4. 여성 운동가와의 교류

『조선일보』 1928년 4월 10일자 기록에 보면 최영숙이 스웨덴국제부인자유평리회에 참가해 명사들의 강연을 들었으며 제네바 대표인 쉘스한큰 스여사와 접견하여 감명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최영숙이 참가한 이 스웨덴 국제부인자유평리회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International Kvinnoförbundet för fred och frihet)²²⁾의 정기회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스톡홀름에서 1928년 1월 7일 개최되어 세계평화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요

21) Riksarkivet. Socialinstitutet I Stockholm. "Register till examinerade och diplomerade elever 1921-1945, A-Z"

22) 1900년 취리히에서 제인 애덤스(1860-1935, 1931년 노벨평화상 수상)를 회장으로 전쟁이 끝난 직후 설립된 단체이다(Alvin digitala samlingar och digitaliserat kulturarv. "International Kvinnoförbundets för fred och frihet arkiv (B 36)").

인들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이 회의의 개막식에는 수백명이 참가했으며 저명한 중국학자인 베른하르트 칼그렌 교수(Klas Bernhard Johannes Karlgren, 1889-1978)와 지질학자인 오토 노르덴헬드 교수(Nils Otto Gustaf Nordenskjöld, 1869-1928) 등 학자들과 페미니스트 마리 쉽생크스(Mary Sheepshanks, 1872-1960), 안나 부게(Anna Wicksell Bugge, 1862-1928) 여성정치가 케스틴 헤셀그렌(Kerstin Hesselgren, 1872-1962) 등 사회적 유명인들이 많이 참석했다(Svenska Dagbladet, 1928.01.08). 이를 통해 최영숙이 접견을 한 사람이 마리 쉽생크스임을 알 수 있다.

5. 강연 및 기고를 통한 한국 알리기

최영숙의 스웨덴에서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한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려고 한 노력이다. 제1장에서 언급했듯이 최영숙 스스로도 한국의 사정을 신문에 실거나 강연회 등에서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스웨덴의 신문 및 기관지 등에서 최영숙이 발표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첫 번째가 최영숙이 직접 시그투나 학교잡지 *Sigtunaringen*에 투고한 “한국의 청년들”(Koreansk Ungdom)(Choi, 1927, 4)이다. 최영숙은 한국이 선조들이 5천년 간 평화 속에서 살아온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1910년 일본의 잔혹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때부터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의 비인간적인 억압을 피해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탈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숙은 자유로운 스웨덴의 청년들을 보며 일제강점하의 자유를 빼앗긴 한국의 청년들을 떠올리면서도 다음과 같이 조국 광복의 희망을 내비쳤다.

한국인과 스웨덴의 청년들을 비교하자면 마치 새장에 있는 새와 자유가 있는 새를 비교하는 것과 같지요. 제가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면 대개 “행복한 스웨덴 청년들”이라고 적습니다. 스웨덴에서 춤을 추는 청년들을 볼 때 저는 감옥에 있는 저의

가난한 동지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의 힘은 마치 저녁 하늘의 해처럼 가라앉을 것이고 억압받는 이들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테니까요. (Choi, 1927, 4)

최영숙은 이와 같은 내용을 스웨덴 신문에서도 언급했다. *Stockholm Dagblad*에 실린 “행복한 행복한 스웨덴 여성들”(“Lyckliga Lyckliga Svenska Kvinnor”)(Stockholm Dagblad, 1927.11.14.)이 그것이다. 이 신문에서는 최영숙과의 인터뷰를 다루고 있는데 최영숙은 기자의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냐는 질문에 3.1운동과 일제 탄압을 언급하며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식, 더 많은 지식”이라고 하며 “우리는 자유인, 자유 부인, 자유 국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략) 일본은 우리의 언어와 국기를 모두 금해버렸습니다”라고 한국의 어두운 현실을 고백하고 있다.²³⁾

강연회에 관한 기록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상술한 스톡홀름 대학교에서의 강연회 이외에도 시민의 집(Folkets Hus)에서 또 다른 여성 기독교 단체인 비타 반데트²⁴⁾의 정규회의 이후에 최영숙이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공고가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Svenska Dagbladet, 1928.02.06). 이 강연이 『조선일보』 1928년 4월 10일자에 실린 편지에서 언급한 민중공회당에서 ‘東洋女子의解放運動’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일 가능성이 크다.

강연과 기고는 아니지만 최영숙이 스웨덴의 유명 백화점인 NK백화점의 동양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기록도 발견됐다. 이 전시는 3년간 준비한 동양 전으로 주로 중국의 물품들을 전시했다. 기록에 보면 당시 중국풍이 스웨덴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다고 되어 있다. 기사 한 가운데 사진이 한 장 실려 있는데 사진을 보면 최영숙이 한복을 입고

23) 미처 찾아내지 못한 원고와 신문 기사가 더욱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지만 자료가 더 모이면 추후 최영숙의 저술을 모아 검토하고자 한다.

24) ‘VITA BANDET’은 하얀 리본이라는 의미로 기독교여성절제연합(WCTU)의 스웨덴 지부이다.

서에 퍼포먼스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진 밑에는 “최영숙 양이 쓰고 또 쓰는 이상하면서도 신비로운 모양들”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Harlequin, 1927, 6).

최영숙은 『신여성』의 인터뷰에서 “나도역시 그들이하지못하는일로써 어 학교사, 벼개수노키(물론동양자수) 또한 조선의사정을 그리여신문가튼데 투고”(婦人記者, 1932, 28)하는 것으로 학비를 해결했다고 밝힌 것과 같이 최영숙은 동양인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포착해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신비로운 곳으로의 동양의 이미지를 학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스웨덴의 매체를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일제강점하의 상황을 고발하고자 한 애국적 노력이 깃들어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나오며

이상 최영숙이 스웨덴에 머물렀던 5년간의 기록을 추적한 결과 최영숙의 스웨덴 시절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밝혀내고 형태없는 신화처럼 회자되었던 증언들에 관한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밝혀낸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영숙은 중국 국적을 통해 스웨덴에 입국했으나 자신이 한국인임을 숨기지 않았다. 최영숙은 경찰 범죄국과의 인터뷰 및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한국인임을 강조했으며 스웨덴 체류 기간 동안 한국인으로의 아이덴티티를 굳건히 유지했다. 둘째, 최영숙의 스웨덴 체류에는 기독교 단체와의 교류가 큰 역할을 했다. 최영숙이 첫 일 년을 보낸 곳도 기독교 관련 시설인 시그투나스티프텔센이었으며 이후 스톡홀름의 스웨덴 여성 기독교 단체 K.F.U.K에 머물면서 단체장이며 스웨덴 공주였던 엘사 세테그렌이 비자 신청 시 보증을 서 주기도 하는 등 이들 기독교 단체로부터 스웨덴 체류에 많은 도

움을 받았다. 셋째, 스톡홀름 아닌 사회정치와 정책 연구소에서 수학했으며 바게 교수와 코흐 교수 등 당시 스웨덴의 정책에 영향력이 큰 학자들에게서 사회경제를 수학한 후 준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돌아왔다. 넷째, 황태자의 도서관에서 일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스웨덴 황실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최영숙은 당시 황태자의 사촌인 엘사 세데그렌 여사와의 친분이 있었고 이 친분은 K.F.U.K를 통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최영숙은 당시 스톡홀름에서는 유일한 아시아 유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학자, 상인, 기자, 유럽의 여성운동가, 중국대사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최영숙은 스웨덴의 매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식민지하의 실태를 고발하려고 노력했다. 최영숙은 당시 한국에 대해서 전혀 접할 기회가 없는 스웨덴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던 것이다.

2019년은 스웨덴과 대한민국이 국교를 수립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90여년이나 앞서서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가 스웨덴으로 건너간 한 신여성에 의해 시도된 적이 있었음을 본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영숙의 삶은 독특한 경력과 연애사를 가진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스웨덴에서의 삶은 북유럽에서 유학한 첫 조선인 그리고 신여성으로서 그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모르는 북유럽의 사람들에게 그 존재와 문화를 알리는 전도사로서도 분투한 흔적이기도 했다. 나아가 황태자 도서관에서 한국 자료 번역이 사실이라면 중국과 일본 컬렉션에 한국 컬렉션을 나란히 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만들었던 인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영숙은 한국인으로서 스웨덴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개인으로서의 학업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황실 및 학자들, 중국대사들 등 사회의 유력인사들과 교류하며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어두운 시기 한국의 비공식 대사로서의 역할을 해냈던 것이다.²⁵⁾

25) 필자는 20세기초 한국-스웨덴의 문화적 교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중심인물 중 하나로 최영숙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 후속 연구로 신여성으로서의 최영숙론을 넘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 국제적 활동 등을 검토해 다채로운 시각에서 최영숙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아카이브 자료>

Alvin digitala samlingar och digitaliserat kulturarv. “Intanationella Kvinnoförbundets för fred och frihet arkiv (B 36)”.

Östasiatiska museets arkiv. “huvudinventarier-K-katalogen över ÖS:s föremål (D1AA:11)”.

Riksarkivet. Kungl. Utrikesdepartementet. “Choi, Jing Sook”.

Riksarkivet. Socialinstitutet i Stockholm. “Examensliggare 1921-1937 (Nr: 1 - 600 D 3:1)”.

Riksarkivet. Socialinstitutet I Stockholm. “Register till examinerade och diplomerade elever 1921-1945, A-Z”.

Sigtunastiftelsen arkiv. “Sigtunastiftelsens Folkhögskola Picture Book (1927-1928)”.

Svenk Juristtidning arkiv. “Institutet för socialpolitisk och kommunal utbildning och forskning”. <https://svjt.se/svjt/1928/197> (검색일: 2018.08.27).

Svenskt biografiskt lexikon. “Gösta Adolffson Bagge”. <https://sok.riksarkivet.se/sbl/Presentation.aspx?id=18992> (검색일: 2018.08.30).

<참고문헌>

강동수. 2016. 『검은 땅에 빛나는』. 부산: 해성.

김경일. 2006.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 김마리아, 박인덕,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1, 45-91.

김경일 · 신영숙 · 정현주 외. 2015.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동아일보. 1926. “瑞典의學海로 사회학을 배우려고 哈市를通過한 崔英淑嬢”. 『동아일보』 (7월 23일), 5.

동아일보. 1931. “서전에류학, 九년만에 귀국한최영숙씨”. 『동아일보』 (11월 29일), 4.

동아일보. 1932. “經濟講演會 平壤서開催”. 『동아일보』 (1월 29일), 3.

婦人記者. 1932. “朝鮮最初の 女經濟學士 崔英淑氏 訪問記”. 『신여성』 1월호,

27-29.

삼천리. 1932. “印度青年과佳約매즌채世上떠난崔孃의悲戀, 瑞典大學에서 印度青年 만나佳約맺고愛兒까지나은뒤에, 瑞典經濟學士崔英淑孃一代記”. 『삼천리』 5월호.

신남주. 2005. “1920년대 지식인 여성의 등장과 해외유학”. 『여성과 역사』 3, 1-75.

驛江人. 1932. “-青春悲話- 經濟學士 崔英淑氏悲戀哀史”. 『신여성』 6월호, 35-41.

우미영. 2006. “신여성 최영숙론-여성의 삶과 재현의 거리-”. 『民族文化研究』 45, 293-328.

일기자. 1932. “經濟學史崔英淑女士와 印度青年과의 戀愛關係의 真相”. 『동광』 제4권 제6호, 33-39.

임정연. 2018. “實名小說의 敍事權力和 목소리 復原의 難境 - 『검은 땅에 빛나는』 과 『코레예바의 눈물』의 경우 -”. 『語文研究』 46(2), 293-318.

전봉관. 2006. 『경성기담』. 서울: 살림.

정병준. 2009. “일제하 한국여성의 미국유학과 근대경험”. 『이화사학연구』 39, 29-99.

조선일보. 1928. “『엘렌케이』차저가 서전에잇는최영숙양”. 『조선일보』 (4월 10일), 3.

조선일보. 1935. “世界的으로紹介된 北朝鮮의動植物”. 『조선일보』 (2월 23일), 2.

최영숙. 1932. “활동적인 그들 감복할 그들의 시간 경제”. 『동아일보』 (1월 3일), 2.

Carlström, B. 2007. *Sigtunastiftelsen en vandring genom rum & tid*. Sigtuna: Bokförlaget Cordia.

Choi, Hyaewool. 2012. *New women in colonial Korea: a sourcebook*. New York: Routledge.

Choi, Yeong suk. 1927. “Koreansk Ungdom”. *Sigtunaringen* 7, 4.

Dahl, M. 1995. *Ekumenisk vision och feministisk strategi: Elsa Cedergren och vägen fram till bildandet av Kristna Kvinnors Samarbetskommitté 1935*. Uppsala: D-uppsats.

Elgklo, L. 1995. *Familien Bernadotte: en kunglig släktkrönika*. Stockholm: Fischer & co.

F.S.K.F.U.K(Förbundet av Sveriges Kristliga Föreningar av Unga Kvinnor). 1933-1934. *Årsberättelse*. Stockholm: K.F.U.K.

Harlequin. 1927. “Österland I Västerland”. *Kompanirullens*, Julnummer, 5-6.

- M.A. 1929. "Kvinnliga studntföreningen". *Gaudeamus*, April, 12.
- Meijer, B. 1924. *Nordisk familjebok, Ugglentplagan*. 36. Stockholm: Globe-Köväss.
- Sigtuna Folkhögskola. 1934. *Prospekt från Sigtuna Folkhögskola*. Sigtuna: Sigtuna Boktryckeri.
- Socialinstitutet I Stockholm. 1928-1930. *Berättelse 1927-1929*. Stockholm: Centraltryckeriet.
- Stockholm Dagblad. 1927. "Lyckliga Lyckliga Svenska Kvinnor". *Stockholm Dagblad* (November 14).
- Styrelsen. 1928. "Kvinnliga studntföreningen". *Gaudeamus*, November, 19.
- Svenska Dagbladet. 1928. "Kvinnoförbundets för fred och frihet Stochkholmsmöte". *Svenska Dagbladet* (January 8).
- Svenska Dagbladet. 1928. "Vita bandets Östermalmsförening". *Svenska Dagbladet* (February 6).

The Records of New Woman Choi Yeongsuk in Sweden: The Facts between the Myths and Rumors

Lee, Hyojin*

Since the late 19th century, Korean women have been able to receive modernized education through missionary schools and private women's schools. Some of them decided to study abroad to learn modern knowledge and encounter other cultures, improving their abilities for their nation. Most of them studied in Japan, America, and China. In this pattern, the experience of Choi Yeongsuk was very unique. She studied in Shanghai and then went to Sweden in 1926 to study sociology at Stockholm. She was the first Korean woman to receive a bachelor's degree in economics.

Despite her unique experience, there is limited existing research on her. Unfortunately, most of the information about her is based on articles in newspapers or magazines on the Korean side and shows a mix of facts and rumor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her activities in Sweden based on facts and reevaluate her life as an international figure. After studying in Shanghai, Choi went to Sweden in 1926 to study sociology at Stockholm. She studied under Gösta Bagge and G.H. Koch and began to build her knowledge of social economics. She also had connections with Swedish royal family members such as Elsa Cedergren. While she was studying in Sweden, she continually tried to introduce Korea to Swedish society. Regarding her international activities, she is an important figure for helping us understand the lives of elite women in colonial Korea and for elucidating the cultural interactions and mutual awareness of Sweden and Korea at that time.

* Lecturer, Heidelberg Centre for Transcultural Studies, Heidelberg University, Germany

Choi was not only a well-educated, westernized feminist, she was also a realistic social activist. Due to her early death, she was not able to realize her own dream or ideal, but what she tried to do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modern Korea. Moreover, she can be reevaluated as a key person for understanding the culture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Sweden through her activities as a transcultural figure.

Key words: Choi Yeongsuk, New woman, Sweden, Cultural exchanges between Sweden and Korea, Oversea Koreans' independence movement

논문투고일: 2018년 08월 31일

심사완료일: 2018년 10월 18일

게재승인일: 2018년 11월 05일